



스페인, 자동차보험 신체상해 손해액 평가시스템 개편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스페인은 자동차사고 신체상해 손해액 평가시스템(Baremo)을 개편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개편된 Baremo의 주된 내용은 완전보상 기본원칙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식 도입과 과실에 따른 보험금 감액 및 독립적 전문가 서비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개편된 Baremo는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상승시키고 손해사정 업무에 다소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스페인은 민사책임과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¹⁾을 개정함으로써 1995년에 시행된 자동차사고 신체상해 손해액 평가시스템(Baremo) 제도를 개선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 이는 EU지침 개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EU국가와의 격차를 줄여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임.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완전하고 공평한(fully and fair)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관련 EU지침(2009)을²⁾ 반영하였음.
 - 개정 이전의 보상기준은 2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EU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도모함.

■ 개편된 Baremo는 완전보상 기본원칙에 따라 사망, 후유장애, 부상에 대해 기본 인적손해뿐 아니라 특별 인적손해 및 금전적 비용손해를 추가하였음.

1) 동 법(LEY SOBRE RESPONSABILIDAD CIVIL Y SEGURO EN LA CIRCULACIÓN DE VEHÍCULOS A MOTOR)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산출에만 적용되나, 보험회사, 법조인, 보험청구인 등은 사고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사망 및 신체상해 보상 지침으로 법원에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Thomas Cooper LLP(2016, 2, 5)).

2) DIRECTIVE 2009/10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relating to insurance against civil liability in respect of the use of motor vehicles, and the enforcement of the obligation to insure against such liability.

- 기존의 Baremo에 의하면 보험금은 사망, 후유장애, 부상에 대해 지급되며, 기본보험금과 보정계수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었음.
 - 사망사고의 경우 기본보험금은 피해자의 나이와 수익자의 범주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피해자의 연간 순소득 및 가족상황에 따라 기본보험금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증액됨.
- 새로운 Baremo는 피해자 사망의 경우 기본 인적손해 급여자를 5개 범주로 정하고³⁾, 특별 인적손해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기본 인적손해 보험금이 증액되며, 금전적 비용손해는 기본비용과 특별비용으로 구분됨.
 - 사망사고에 있어 특별 인적손해는 피해자가 유족의 유일한 가족이었거나, 편부모 또는 부모 모두 사망, 어린이 사망, 임신 중 여성 사망 등의 경우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액이 증액됨.
 - 금전적 비용손해는 1인당 400유로의 확정금액인 기본비용과 운송·유해 본국송환·장례식에 드는 특별비용을 지급하며, 최대 120,000유로의 소득손실도 포함하여 지급함.

■ 또한 개편된 Baremo는 자기과실에 따른 보험금 감액 및 독립적인 전문가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자기과실에 따라서 보험금을 최대 75%까지 감액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음.
 - 예컨대, 피해자가 안전벨트·헬멧 또는 기타 보호장치 미착용·오착용, 안전규칙 위반 그리고 손해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음.
-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예비클레임을 통지하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법률의학 전문가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는 보험회사 지급사유와 공정한 보험금 산정내용을 기술하여 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개편된 Baremo는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상승시키고 손해사정 업무에 다소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은 사망 및 심각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증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험금이 140만~500만 유로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⁴⁾
- 새로운 Baremo의 손해액 산정이 기존보다 복잡하여 손해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더욱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약식재판제도(trials for minor offences)가 폐지됨으로써 보험회사의 법원 정보 이용이 불가해져 손해사정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 [kiri](#)

3) 피해자 사망 시 수익자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로 분류하였음. 개정 Baremo에 새로 도입된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5년 동안 함께 살고 특별히 가까웠던 사람으로 혁신적인 개념임.

4) General Re(2016. 4), “The New Baremo and Its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Reform of Spain’s Injury Claims Assessment”.